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4호 【루계 제25543호】 주체106(2017)년 2월 3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체106(2017)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꽁고공화국 대통령, 꽁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에스빠냐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 칠레맑스-레닌주의혁명당,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장,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지도자, 페바는근로자련맹 총비서, 말레이시아중국인당 총서기, 만마련맹련대성발전당 총비서,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수리아 알 아흐드 알 와타니당 총비서, 캄보쟈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끼르기즈스딴아알라당 지도자,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위원장과 총서기, 인디아인민당 고위지도자, 전인디아질보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 로므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로씨아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쏘련공산당소속 로씨아공산주의로동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벨카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체스꼬공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프랑스혁명적공산당 총비서,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과 국제비서, 뽈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이딸리아 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키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 아프리카민주련합-기네민주당 총비서,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모리따니공화국을 위한 련맹 위원장, 민주꽁고로동당 총비서, 민주꽁고로동자당 위원장, 민주꽁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총비서, 민주꽁고인민혁명당 총비서대리, 에찌오삐아민족보통일련합당 위원장, 에찌오삐아주통맹당 위원장, 에찌오삐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 에찌오삐아민전선당 위원장,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라질자유조국당 위원장, 페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과 총서기가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수리아아랍민주동맹당 부총비서, 아랍사회부총당 부총비서,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 통일로씨야당 총리사회 부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이딸리아의 공산당 국제부장,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에찌오삐아민족주의자당 부위원장, 이딸리아총합투자그룹 리사장,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총국장,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부리사장, 사무국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 서기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전쏘련국방상, 로씨야 21세기관헌악단 단장, 로씨야련방 연해변강 장관을 비롯하여 로씨야, 중국, 꾸바,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먄마, 몽골, 싱가포르, 캄보쟈, 타이,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월남, 노르웨이, 네데를란드,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루므니아, 벌가리아, 벨라루씨, 스위스, 스웨데에, 슬로벤스꼬, 체스꼬, 프랑스, 핀란드, 뽈스까, 이슬란드, 이딸리아, 에스빠냐, 키네, 나이제리아, 리비아, 페닌, 잠비아, 민주꽁고, 튜니지, 앙골라, 우간다, 에찌오삐아, 메히꼬, 브라질, 칠레, 페루, 에꽈도르의 정계, 사회계, 군무,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새해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자랑찬 승리의 해인 2016년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뜻깊은 한해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2017년에도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꽃도바공화국 사회주의자당 위원장이 새해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1월 23일 로씨야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웨. 아. 베르로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에는 전 쏘련국방상 데. 떼. 야조브,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싸쉬 우말라또바, 21세기관헌악단 단장 빠벨 오브쩐니꼬브를 비롯한 로씨야의 저명한 인사들이 위원들로 망라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과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로씨야연해변강 빠르찌잔스크시준비위원회가 1월 23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야 연해변강림법회의 의원인 련방공산당 빠르찌잔스크시위원회 제1비서 흐멘로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나호드까시준비위원회가 1월 28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호드까시위원회 제1비서 젤레노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2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마자르준비위원회가 1월 23일 부다페슈트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자르로동당 위원장 튜르패르 졸라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4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5돐, 위대한 김정일령도자 탄생 75돐경축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준비위원회가 1월 23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총비서 아드난 이스마일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5돐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탄생 75돐경축 이란이슬람교련합당준비위원회가 1월 25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제사업담당 부총비서 마흐디 쏠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에 즈음하여 1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하고있는 눈부신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강원도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자

1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지하막장마다에서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온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 1월 석탄생산계획수행의 자랑찬 승전고가 터져올랐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31일까지 석탄공업성직인 석탄생산계획이 105%로 초과완수되였다.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 1월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여만톤의 석탄을 더 생산함으로써 발전소들과 금속, 화학공장들에 많은 석탄을 보내주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석탄보장의 많은 몫을 맡고있는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석탄생산계획을 108%로 넘쳐 수행하였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막장들의 기계화장비수준과 갱내 석탄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면서 자랑찬 생산성과를 안아왔다.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는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가 앞장섰으며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1월 석탄생산계획을 110%로 넘쳐 수행하였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와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은 총정의 70일전투, 200일전투에서 발휘하였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증산투쟁을 파감히 벌려 1월 석탄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였다.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들과 강서탄광, 삼신탄광, 전천탄광, 사리원탄광에서도 올해 1월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 빛나는 위훈이 창조되였다.

본사기자 강명천

철도운수부문에서

새해 첫날부터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온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1월 화물수송계획을 104.4%로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철도성 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내용을 모든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피끓는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안고 물동수송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침입식정치사상사업을 박력있게 벌리였다.

평양철도국과 개천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단위들에 대한 물동수송전투를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함흥철도국의 일군들은 기관차와 화차들의 기술상태에 맞게 방향별, 구간별에 따르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단위들에 필요한 물동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려 매일 높은 수송실적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청진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수송이자 생산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화차머무름상태와 짐싣기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신속한 차줄이와 차무이로 집중수송렬차들을 제때에 떠나보내였다.

라선철도국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집단적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첫달 수송계획수행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정경철

기계공업부문에서

기계공업성아래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1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려명거리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대상설비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나라의 전력생산에 크게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날에 날마다 대상설비제작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를 제작해낸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올해 1월에도 전투성과를 확대하였다.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지난해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이미 마련한 생산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 발동하여 련속공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는 인민경제 중요대상들에 보내줄 전력케블을 비롯한 중요지표생산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렸다.

평양전동기공장과 성천강전기공장의 로동계급도 려명거리건설장에 필요한 전동기생산에서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본사기자

건설건재공업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 첫달에 건설건재공업성아래 여러 단위들에서 혁신의 소식이 전해졌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인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와 천내리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1월 건재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1월의 하루하루는 생산계획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격동적인 날과 날로 이어졌다. 온 기업소에 첫달 전투계획수행을 위한 결사관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친 속에 지난 1월말까지 련합기업소적인 월 세멘트생산계획이 101.3%로 완수되였다.

천내리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1월 전투기간 당의 부름에 오직 헌신과 실천으로 대답하는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이곳 세멘트생산자들은 맡겨진 첫달 세멘트생산계획을 101.2%로 원만히 수행하였다.

대안친선유리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해 200일전투의 나날에 겨울철에 리용할 원료, 부원료를 충분히 갖추어놓은 성과에 토대하여 년초부터 굴함없는 공격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지난 1월말까지 올해 첫달 판유리생산계획을 116%로 훨씬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본사기자 지원철

채취기계공업부문에서

채취기계공업국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의 첫 전투부터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국과 아래단위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뿜프와 전동기, 광차생산을 비롯한 맡겨진 1월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앞당겨 완수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국일군들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첫달 전투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또한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옳은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감으로써 맡겨진 전투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였다.

국아래 공장, 기업소일군들의 책임 전투조직이 그대로 생산성과로 이어졌다.

200일전투기간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닌 안주뿜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만리마를 탄 기세로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렸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첫달 전투목표를 지난 1월 25일까지 빛나게 완수하였다.

전천착암기공장과 신의주광산기계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을 본받아 만리마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타는 일념안고 힘차게 내달려 맡겨진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지금 뜻깊은 올해의 첫달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채취기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만리마시대의 선구자가 될 신심드높이 채취기계설비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영민

홍건도간석지건설에서 전례없는 로력적위훈 창조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의 대고조진군에 총궐기해나선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홍건도간석지 2단계공사에서 기적적인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곳 일군들과 간석지건설자들은 새해에 들어와 20만산대발과와 5만산대발과를 성과적으로 보장한 기세드높이 철야돌격전을 벌려 1지구와 2지구에서 첫 한달동안에 근 2 000m의 제방성토공사를 진행하고 1월 공사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일떠선 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간석지건설자들은 8년동안에 해야 할 홍건도간석지 2단계공사를 4년동안에 결속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철야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최영덕, 서현철, 서원길동무를 비롯한 이곳 종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정치사업무대를 전투현장으로 옮기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간석지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종합기업소에서는 현장들에 꾸려놓은 이동수리기지들에서 부속품들을 생산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부족되는 다이야와 부분품들을 제때에 해결하여주면서 홍건도간석지 2단계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혁신과 비약의 불길은 신미도 1지구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1지구에 전개된 종합기업소 리수복청년돌격대와 로하간석지건설분사업소의 건설자들은 20만산대발과를 성과적으로 보장한 기세드높이 제방성토공사를 위한 철야돌격전을 벌려 1월 한달동안에 1 000여m의 제방을 쌓는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종합기업소 리수복청년돌격대의 전투원들은 청년들을 우리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준 당의 하늘같은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힘찬 돌격전을 벌리면서 홍건도간석지 2단계공사에서 전례없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로하간석지건설분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압축기수리정비를 짜고들면서 종, 소발파를 위한 도깽굴진전투를 힘있게 벌려 제방성토공사에 필요한 막돌과 흙을 제때에 보장하고있다.

청강기계화분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대형화물자동차와 굴착기, 불도저를 비롯한 설비들을 제때에 수리정비하고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매일 수십m의 제방을 쌓아나가는 대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련대적혁신의 불길은 홍건도간석지 2단계공사가 벌어지고있는 신미도 2지구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장송, 다사, 보산, 석화간석지건설분사업소와 다사기계화분사업소의 전투원들은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홍건도간석지 2단계공사를 끝낼데 대한 당결정을 뼈에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1월 한달동안에 790m의 제방을 쌓는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특히 다사간석지건설분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압축기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발파를 위한 도깽굴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면서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돌파구를 과감하게 열어나가고있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을 본받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홍건도간석지 2단계공사를 완공하고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려는 이곳 일군들과 간석지건설자들의 대담한 공격정신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투장들마다에서는 만리마속도가 창조되고있으며 2월에 들어와서도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유압식착암기생산 적극 추진

김책착암기공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김책착암기공장에서 새해벽두부터 유압식착암기생산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지난해에 첨단과학과 높은 기술기능을 요구하는 유압식착암기와 유압뽐프시제품을 만드는데 성공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해에 들어와 유압식착암기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100% 우리의 자재, 우리의 설비, 우리의 기술로 만드는 유압식착암기는 경제적의의가 크다. 유압식착암기는 공기식착암기에 비해 천공속도가 빠르고 효률이 높으며 수명이 길다. 또한 전력소비가 적으며 무게도 가볍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발휘하였던 그 정신, 그 기세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을 일으키도록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활신하게 벌리고있다.

지배인 리상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무당치는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로 유압식착암기생산전투를 과감하게 밀고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유능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유압식착암기생산에 망라시키고 그들의 창조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탐구도입하게 하는 한편 착암기생산에 필요한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생산의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장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부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그들은 보링반과 원통연마반을 비롯한 설비관리를 깐지게 하여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새해전투를 시작한지 10여일동안에 100여종에 달하는 부분품들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메이링직장에서는 침탄질화로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제정된 기술지표들을 어김없이 보장하여 제품의 열처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해나가고있다. 단조직장과 주물직장의 로동자들은 서로의 집체적지혜를 합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가열로와 유도로, 프레스를 비롯한 로들과 설비들의 보수정비를 제때에 진행하고있다. 그리하여 맡겨진 협동품과 주물품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다.

전력관리를 맡은 단위들에서는 합리적인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탐구도입하고있으며 새 기술창안자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여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여 생산자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강원도정신을 구현하여 채취공업부문에 유압식착암기를 더 많이 보내줄 불타는 열의를 안고 올해 진군길의 하루하루를 자랑찬 생산성과로 수놓아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평양양말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력사의 땅 보천보에 추억을 불러오는 흰눈이 내린다

백두산지구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을 따라(2)

백두산관광도시를 떠난 우리의 쉬지없은 영광의 땅 보천보로 이어졌다.

혜산시를 떠날 때에는 하나둘 눈꽃이 날리기 시작했는데 보천군 소재지에 들어설무렵에는 하늘을 가득 메우며 큰 눈송이들이 내려쌓이고있었다.

흰 눈발사이로 보천보의 옛 시가가 안겨들었다. 흰 눈송이들이 빙설천지를 어루쓸며 유정한 전적지의 강산을 뒤덮고있었다.

보천보의 하늘가에 가득한 눈송이들은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에 대한 추억을 싣고 력사의 땅에 내려앉고있었다. 곤장덕의 이깔나무숲에도, 가림천의 물결우에도 흰 솜이불을 두툼히 덮어주는듯싶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천보혁명전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항일의 전설적영웅의 모습을 우러렀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암흑에 잠긴 삼천리강토를 밝히며 활활 타오르는 삼단같은 불길을 가리키시며 이 나라 동포들에게 하시던 백제산 김대장의 쩌렁쩌렁한 음성이 들려온다.

《여러분! 저 불길을 보십시오. …저 불길은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날강도 일제놈들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있습니다.》

진정 보천보에 혁명의 불을 올리시여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해방의 날을 불러오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어느새 달려나와 사적지구역의 눈을 치고있는 사람들속에서 우리는 보천보혁명박물관의 오랜 학술일군인 황만청동무를 만날수 있었다.

우리들사이에는 자연히 보천보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로 되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보천땅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천험의 요새지로서 전설같은 이야기 또한 많은 고장이라고 한다.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깊고 험한 협곡을 따라 내려오느라면 홀창한 수림에 가리워 좁아졌던 하늘이 이곳에 이르러서야 넓어졌다고 하여 그 이름도 보천, 우리 선조들은 혜산땅에 진을 설치하였다면 여기 보천땅에는 그보다 작은 군사적행정단위인 보를 두어 외적을 막았다고 한다.

아름다운 숲속을 흘러흐르는 물이라고 하여 가림천, 수려한 덕지대라 하여 려수력, 계곡에 구슬같은 물이 흐른다는데로부터 옥계동이라는 지명이 있는 보천땅에는 곤장덕의 지명유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18세기에 있은 일이라고 한다. 그때 백두산일대의 국경을 이웃나라 관리와 함께 확정할 사명을 지녔다는 봉건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이 이 고장을 지나게 되었다. 음풍영월만을 알던 사대부들인지라 멀고 험한 백두산길을 찌려 하층관리들에게 소임을 떠맡기고는 지들은 사인교를 타고 건들거리며 주색잡기에 빠져있었다. 결국 나라의 지경이 그릇되게 정해졌다고 한다. 백성들은 격분을 금치 못해하였고 그 사실은 왕에게도 닿아 죄를 따지라는 령이 내렸다. 귀로에 오른자들이 어지에 따라 현지에서 즉시 곤장을 맞게 되었는데 그때서 곤장덕이라는 지명이 생겨나게 되었다. …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오늘날 이 땅의 누구나 보천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것은 결코 보천땅의 수려한 자연이나 군사적중요성, 력사이야기때문이 아니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의 총성을 울리신 그때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보천보였다.

성스러운 보천보에 울린 멸적의 총성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큰 메아리를 울리며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다.

그것은 보천보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적지인 동시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든 혁명사적지이기때문이다.

보천보를 여러차례 찾으시여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하게 모시도록 해주시고 백두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력사의 땅 보천보를 혁명의 성지로,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졌기에 유서깊은 보천보는 온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아는 성스러운 고장으로 되였다.

보천보전투가 있은 때로부터 어언 80년세월이 흘렀다.

학술일군의 말에 의하면 오늘날 보천군에는 보천보전투의 목격자, 구시산까지 로획물자를 지고갔던 사람들이 한명도 없다고 한다.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흘렀기때문이다.

하나 어이하여 보천군인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이 보천보전투 전과정을 잘 알고있는것인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가 유명하고 항일무장투쟁사에서 특출한 지위를 차지한다는데도 있겠지만 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이룩하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이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혁명의 재보로, 만년초석으로 여기시며 만대에 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때문이다.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졌기에 보천보가 영원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이 만대에 빛나는것이다.

력사의 땅 보천보에 눈이 내린다.

보천보의 흰눈은 우리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더해준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여주시려 험난한 력사의 숫눈길을 헤쳐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욱자욱이 돌이켜진다.

우리는 보천보 옛 거리에서 보천보혁명박물관 관장으로 일하고있는 리영옥동무를 만날수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그가 구시물동 강사로 진출하여 온 나라 인민의 사랑을 받던 일이 엊그제같은데 벌써 19년이라는 시일이 흐른것이다.

여전히 정열적인 그는 60여년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다.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이 타번지던 간고한 시기였지만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전하여가려는 보천땅 인민들의 열의는 높았다. 보천보전투의 목격자, 증언자들인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보천보전투사적을 보존하는것을 자기들의 도리로 여겼다.

그리하여 갓 조직된 군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00리 떨어진 심산속에서 100년 자란 잣나무를 정히 나르고 다듬어 보천보전투지휘처자리에 표식비를 세워놓았다. 거기에 《조선인민의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장군 만세!》의 글발과 함께 1937년 6월 4일에 김일성장군께서 여기에서 보천보전투를 지휘하시였다라는 글을 새겼다.

보천군주민들과 우리 인민의 순결한 충정의 마음에 의하여 주체44(1955)년 8월에 보천보혁명전적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졌고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 분관 개관식이 진행되였다.

하지만 그때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분자들은 항일혁명투쟁전통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 나가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믿음을 주고 정을 준것만큼 성과가 크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가운데는 이곳에서 3대혁명소조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한결 단단히 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3대혁명소조원들을 기업소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기둥, 당의 선군

기 둥 과

어려혜전까지만도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업소의 기술과제수행에서 주동적인 위치에 서지 못하였다. 기술자들의 보조력량으로서 기업소중점과제수행건수는 극히 적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로부터 소조원들이 자기 힘에 대한 확신, 기업소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지 못한것이였다.

언제인가 소조원들의 기술혁신목표와 그 수행정형을 료해하던 당위원장 리용호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당위원회 특히 당책임일군인 자기의 사업에 빈틈이 있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가 파견된 단위의 당책임일군들은 일상적으로 소조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지도를 중요한 당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소조원들을 대담하게 믿고 중점과제들을 맡겨주어 실천투쟁속에서 그들을 기업소의 기둥감으로 키우자, 이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로작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령도를 총지하게 받들어나가는 후비간부들로 키우는데 큰 힘을 넣은 결과라고도 말할수 있다.

주 추 돌

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를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는 당책임일군의 마음속에 굳어진 결심이였다.

당위원회는 행정, 기술일군들과의 토의밑에 소조원들에게 직장을 두개씩 맡겨주어 그들이 생산공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생산과 관리운영에서 긴절한 문제들을 찾아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하였다.

기업소중점과제수행에 소조원들을 대담하게 망라시켰다.

총정의 70일전투기간 현합기업소는 수입에 의존하던 초산비닐합성촉매제조용 활성탄을 국산화할 목표를 내세웠다. 생산공정꾸리기를 소조원들에게 맡기자는 당책임일군의 제의에 일부 기술일군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아직 기술도 경험도 부족한 소조원들에게 맡겼다가 행패를 보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때문이였다.

하지만 당책임일군들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각질활성탄생산공정확립을 소조원들이 맡아하도록 믿음을 주고 적극 떠밀어주었다.

중간시험에서 실패했을 때에도 당책임일군은 소조원들을 고무해주며 완강한 투쟁기풍을 발휘하도록 이끌어주었다.

당조직의 믿음과 고무에 힘을 얻은 소조원들은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끝내 성공을 안아왔다.

각질활성탄만이 아니다. 당위원회는 비날론생산성을 높이고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화과의 기술자들이 시작한 중점과제도 소조원들이 주동이 되여 밀고나가도록 믿음을 주고 도와주었다. 이 과정에 소조원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 기업소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생산정상화에 절실히 필요한 수많은 기술과제들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기업소의 기둥감으로 성장하게 되였다.

당조직의 믿음, 바로 이것이 그 억센 기둥을 떠받드는 주추돌이였다.

열 매 와 믿 거 름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목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한 일군들의 놀라움은 컸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리용하는 전통개건공사가 중요한 조항으로 들어있었던것이다. 소조원들개건은 좀 미루었으면 하는 일군들에게 당책임일군은 말하였다.

이렇게 되여 소조원들개건은 70일전투목표의 중요한 조항으로 결정되였다. 당위원회는 기능공들을 붙여주고 아크릴계 외장재며 타일을 비롯한 자재들도 보장해주면서 적극 떠밀어주었다. 번듯하게 개건된 다음에는 현합기업소적인 보여주기사업도 조직하여 소조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었으며 일터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었다.

당위원회는 현대적인 콤퓨터를 마련해주고 땔감도 보장해주는 등 소조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전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었다. 소조원들이 가소제생산과정에 나오는 폐촉매를 회수리용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달라붙었을 때 당위원회 해당 부서 일군들이 실험기구와 시약들을 알짜리 보장해주었으며 출근거리가 멀어 힘들어하는 소조원에게 숙호실도 마련해주었다.

그러면 사업조직, 생활조직보장이 소조원들에 대한 사랑의 전부이겠는가.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련합기업소의 기둥이 되여야 할 소조원들이 실적으로 당앞에 떳떳하게 하는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정이라고 당책임일군들은 생각하였다. 그러자면 소조원들의 마음속깊이에 들어가는것이 필요했다.

기업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의의를 가지는 폴리비닐알콜에 의한 란성바킹, 기계식기밀바킹제작과제수행을 맡아하는 소조원과의 사업과정을 놓고보자.

언제 보나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얼굴빛이 어두운 중합직장의 소조원이 당책임일군의 마음에 걸렸다.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는 소조원이였다.

지난해 가을 그 소조원을 또다시 만난 당책임일군은 말하였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동무가 실력이 낮아 부진상태에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얼굴색이 핏기한데 어디 아프지 않은가.

친아버지처럼 정을 주는 당책임일군에게 소조원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심정을 털어놓았다. 수입산 고무대신 기업소에 흔한 폴리비닐알콜로 바킹을 만들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품고 그는 반년나마 문헌연구와 조사를 진행하여왔었다. 그러나 심오한 과학의 세계는 초학도에게 선뜻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원래 성격이 소심한 그는 뭐 성공할수 있을가 하는 우려감으로 누구에게도 말을 내지 않고 혼자 모대겨왔다. 그러다나니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실적을 낼수가 없었던것이다.

이 사실을 놓고 당책임일군은 소조원들과의 사업을 맡아하는 당, 행정일군들앞에서 자기비판을 하였다. 당의 의도대로 소조원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는다고 말은 많이 하였지만 그들의 심장깊이 간직된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였다.

정을 주지 않고 성과를 바라는것이 공들이지 않고 큰 열매를 바라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 소조원의 연구사업은 기업소적인 중점과제로 선정되였다. 당위원회는 대학의 과학자, 공장의 재능있는 기술자들과 협동작전을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해주고 수지가공직장 실험실도 마음껏 리용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소조원의 건강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였으며 그가 연구사업과정에 집단주의의 위력을 절감하며 사상정신적으로 성장하도록 각방으로 도와주었다. 집단의 믿음과 사랑속에 성공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당책임일군의 사업방법을 목격하는 일군들의 가책은 컸다. 실적이 낮은 소조원들을 추궁하기에 앞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고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마음과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뼈에 새기였다. 일군들의 관점과 일본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소조원들의 기술혁신실적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지난해에 3대혁명소조는 기업소의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수십건의 기술혁신과제를 맡아수행하였으며 국가발명권만 해도 5건이나 수여받았다.

훌륭한 열매를 무르익힌 믿거름, 그것은 바로 사랑과 정이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주추돌, 믿거름이 되여 3대혁명소조원들과의 사업을 믿음과 정으로 해나갈 때 소조원들모두가 나라의 억센 기둥감으로, 창조의 거인들로 자라날수 있다는것을 이곳 당위원회 사업은 실천으로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향 란

상원군 장항농장 3대혁명소조원들

성공에로 가는 지름길

지난해초 시험포전으로 향하는 3대혁명소조원 허복실동무의 발걸음은 돌덩이를 매단것처럼 무거웠다. 방금전에 목격했던 일이 발목을 잡았던것이다.

온도조절을 잘못하여 알깨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와하던 청년축산작업반 관리공의 모습이며 관리공의 무책임성때문이라고 총고를 주던 작업반원들의 목소리…

(관리공의 무책임성으로만 볼 일인가. 3대혁명소조원인 나에게는 책임이 없단 말인가.)

이때부터 허복실동무는 자기의 기술혁신안을 계속 내밀면서 알깨우기를 높이기 위한 문제도 새로운 기술혁신과제로 맡아들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혁신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청춘의 열정과 창조적인 지혜를 다 바치며 끝장을 볼 때까지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실천은 생각했던것보다 어려웠다. 문헌자료로써, 알깨우는기계의 설계와 조립, 프로그람작성을 비롯하여 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애로와 난관은 그림자처럼 뒤따랐다.

그때 힘을 주고 지혜를 보태준것은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이였다. 농장의 기술발전을 위한 일에는 네일내일이 따로 없다고, 힘들수록 집단에 의거해야 한다며 알깨우는기계장치제작을 도와나선 소조책임자 김경수, 소조원 김철, 신상철동무들…

특히 프로그람작성을 위해 그들이 바친 열정은 참으로 뜨거웠다.

자신들이 맡은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면서도 하나의 기술문헌자료라도 더 구해주기 위해 먼길에도 서슴없이 나섰고 쓰러지면 손잡아 일으켜주며 한마음한뜻이 되여 탐구의 길을 어깨걸고 헤쳐나갔다.

그 뜨거운 마음들이 합쳐지는 과정에 드디어 성공의 날은 오고야말았다.

청년축산작업반원들은 알깨우는기계에 모여들어 까나오는 병아리들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의 창조지혜를 합치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는 과정에 점촉식농업용온도측정장치를 리용하여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방도와 물이 적은 조건에서의 벼재배방법, 강냉이의 합리적인 고랑재배기술 등을 비롯한 수십건의 기술혁신성과들을 내놓게 되였다.

그들이 이룩한 하나하나의 기술혁신성과들은 그 어떤 지혜에 앞서 서로 돕고 이끄는 뜨거운 마음들이 안아온 귀중한 열매였다.

성공에로 가는 지름길은 바로 하나가 된 마음에 있었다.

본사기자

신념으로 안아온 국산화의 자랑찬 열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우리는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늘 불붙는 생산현장에서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도 같이하고 기름냄새도 맡으면서 그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우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군중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신념은 미래를 본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초고전력전기로 전극접촉판을 만들어낸 한가지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었다.

2년전 어느날 강철직장현장에 들어서던 조강철동무의 얼굴은 불을 뒤집어쓴듯 막 달아올랐다. 전극접촉판이 없어 생산을 멈춘다는것이 웬 말인가고, 이것을 왜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가고 가슴을 치는 로동자들의 모습을 마주볼수 없었던것이다.

그날 소조총화에서는 열기띤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초고전력전기로 전극접촉판의 국산화는 결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조국이 우리 3대혁명전위들에게 주는 전투명령이다.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으로 무조건 국산화를 실현하자.

이렇게 되여 전극접촉판의 국산화는 3대혁명소조의 전투목표로 정해지게 되였고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되였다.

즉시에 개발조가 무어졌다.

소조원들인 조강철, 배경혁, 위승혁, 김성환동무들은 곧 새로운 전투에 진입하였다.

그들이 걷는 사색과 탐구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초고전력전기로 전극접촉판을 100% 국산화한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기때문이다.

일부 기술자들이 이 길에 나섰다가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그대로 밀어놓은 사실만 보아도 잘 알수 있었다.

그러나 소조원들은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순간도 주저함이 없이 돌진하였다.

방대한 문헌연구, 우리의 재료를 얻기 위한 분석과 실험, 용해시간과 전력소모량, 탄음을 측정, 100여차의 모의시험 등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지표들을 확증하기 위해 보낸 창조의 낮과 밤들은 그 얼마였던가.

한초한초가 더없이 귀중한 그들이였기에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전투를 벌렸다.

이런 불같은 정열과 탐구의 나날속에 그들은 첫 전극접촉판을 만들어 시험에 들어갔다. 그런데 시험결과는 실패였다.

그러자 공연한 시간랑비이다, 오죽하면 기술자들이 그만두었겠는가 하는 소리와 함께 괜한 고생을 하지 말고 그만두라는 우려와 걱정이 섞인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하지만 소조원들은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실패는 있을지언정 동요란 있을수 없다. 승리의 결승선을 향하여 오직 앞으로, 최전속 앞으로!

이런 비상한 의지를 안고 소조원들은 더욱 분발하였다.

그들은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며 원인을 찾은데 기초하여 전극접촉판제작에 필요한 원료의 배합비와 누름세기를 확정하였으며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 과정에 끝내 성공의 열쇠를 찾아쥐게 되였다.

이런 불같은 정열, 완강한 실천력은 수입에 의존하던 초고전력전기로 전극접촉판을 국산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에 의한 초고전력전기로 전극접촉판생산에서의 성공!

이것은 수령의 유훈,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길에선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 숭고한 자각과 비상한 의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오직 우리의 원료와 우리의 기술로 만들겠다는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지닌 신념의 강자들만이 안아올수 있는 자랑찬 결실이였다.

그렇다.

그것은 바로 령도자의 믿음에 그 어떤 말이 아니라 오직 실천으로, 실적으로 보답하려는 척후병들의 신념의 고귀한 결정체였다.

김 희 철

과학기술증서에 비낀 순결한 마음

평성합성가죽공장 3대혁명소조원들

평성합성가죽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을 두고 사람들은 재능있는 청년들, 보배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10여건의 과학기술증서들이 우리의 눈에 안겨들었다.

증서마다에 새겨진 3대혁명소조원들의 탐구의 발자취를 더듬어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하게 벌려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의 명수,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가 되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책임자 박정현동무가 들려준 이야기가운데서 소조원 장금철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장금철동무가 부직포밀도측정장치연구에 뛰여든것은 70일전투로 들끓던 지난해 3월이였다.

종전의 부직포밀도측정방법은 부족점이 많았다. 밀도측정을 생산된 부직포의 여러 부분을 도려내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하다나니 기대를 세워야 했고 측정값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으로 하여 생산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있었다. 자재며 로력랑비는 두말할것 없었다.

장금철동무가 이 문제를 기술혁신과제로 선정하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각이하였다.

한번 해보라고 떠미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의 방법으로도 생산을 해왔는데 굳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충고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소조원들까지도 막아나섰다. 지금껏 해놓은 일도 적지 않은데 공연한 일에 뛰여들었다가 공든 탑이 무너질수 있다는것이였다.

명예냐 랑심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장금철동무는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그는 탐구의 자욱을 힘차게 내짚었다.

전문연구기관을 찾아 그가 다녀온 길은 그 얼마이고 기술서적들을 탐독하며 지새운 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힘이 진하여 쓰러졌다가도 자신에게 모질게 채찍질하며 일어서군 하였다.

허나 성공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첫 시험에 이어 두번째 시험에서도 측정값의 오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실패가 거듭되자 이러저러한 소리들이 장금철동무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바로 그러한 때인 주체105(2016)년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전변된 공장을 찾고보니 기쁨도 크지만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하여 마음이 아파온다고 우리 원수님께서 뜨겁게 되뇌이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금철동무는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절세위인들의 애국애민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는 길에서 잠시나마 주저했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또다시 긴장한 전투가 벌어지는 속에 실시간으로 부직포의 밀도를 측정할수 있는 장치가 완성되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우리의 원료에 의한 난연성합성가죽의 제조방법을 연구완성한 최수향동무를 비롯하여 합성가죽생산의 다색화, 다양화를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하기에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과학기술증서들을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그 모든 증서들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해나가려는 3대혁명전위들의 리없이 맑고 재끗한 마음을 비쳐주는 랑심의 거울로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본사기자 한 영 철

3대혁명소조원들 풀어나가고있는 서평양기관차대에 파견된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적극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농기계생산에 힘을 넣어

신천군 협동농장의 일

군들과 농장원들이 40여대의 깊은층비료주는기계를 제작할 높은 목표밑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진창희, 김세철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기계화작업반원들과 수리분조원들이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농기계제작을 전투적으로 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기계화작업반원들은 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농기계를 질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고있다. 또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모아 자체로 풀어나가고있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농기계제작실적은 날마다 오르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농산작업반들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제10작업반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작업반자체의 힘으로 깊은층비료주는기계들을 만들고있다. 이들의 뒤를 따라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농기계제작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올해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 열의드높이 농기계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철길로반공사를 힘있게 다그친다.
—216사단 해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평양시련대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생산장성의 근본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고원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의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을 열기 위한 투쟁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하다면 오늘날 한개 생산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단위 사업을 추켜세우자면 어떤 자세와 립장에 서야 하는가.

우리는 석탄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체로 해결함으로써 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는 고원탄광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 고원탄광앞에는 높은 석탄생산목표가 제시되였었다. 그렇다고 하여 상부에서의 반복채굴이 계속되는것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보다 조건이 더 좋아진것은 없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일념으로 전투에 진입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는것과 함께 방도가 있어야 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서 기본초점으로 된것이 탄광의 현 조건에서 생산장성의 돌파구를 어떻게 열어나가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일부 사람들속에서 여러가지 안이 제기되였지만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높은 석탄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없었다.

이때 통일갱 갱장 리성원동무가 지난 시기의 경험에 기초하여 고리형통기순환채탄법과 일반채굴방법을 합리적으로 결합하여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한 안을 내놓았다.

당시까지 탄광에서는 좁은 탄층의 첫 구역을 채굴할 때 완경사습곡구조의 경사구간에서 련속 작업굴진과 석탄생산을 진행하다나니 많은 품을 들이면서도 생산실적을 높이지 못하고있었다. 또한 작업굴진막장들에서 공기순환장애로 채취률도 높이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습곡구조의 가까운 항사부분에 수평중단막장들을 전개하고 배사부분을 향하여 작업굴진을 마주 전개하는 채탄법을 적용하면 생산성을 높일수 있으며 배사부분의 웃수준으로 서로 관통시켜 단마구리에 존재하는 탄산가스농도도 종전에 비해 1/6로 줄일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채취률을 80%이상 높일수 있다는 그의 론리적인 주장은 협의회에 모인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찬동을 받았다.

이렇게 되여 그가 내놓은 채탄방법이 다른 갱들에도 도입되여 1.5배의 생산장성을 가져오게 되였으며 그후 제31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였다.

통발나무회수와 운반능력을 높이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놓고보자.

지난 시기 탄광에서는 봉피식석탄생산과정에 적지 않은 통발나무를 그대로 막장에 묻어두었다. 또한 페루이음부위에서 탄차무게에 의한 충격점이 베아링에 직접 가해지다나니 석탄운반에 지장을 주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통발에 쇠바줄을 걸어 수동식권양기로 잡아당김으로써 통발나무들을 모조리 회수하여 석탄생산에 리용할뿐아니라 벨트관을 리용함으로써 베아링에 가해지는 충격걸수를 대폭 줄여 탄차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탄광에서는 400kW발동발전기를 우리 식으로 개조한것을 비롯하여 30여건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생산장성의 돌파구를 확고히 열어놓았다.

그리하여 탄광에서는 이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의 높이 세운 첫달 석탄생산목표도 빛나게 수행하였다.

이 모든 성과에는 과학기술발전에 생산장성의 근본열쇠가 있다는것을 뼈에 새기고 늘 사색하고 탐구하며 그에 대한 연구종자도 안겨주면서 대중의 앞장에서 과학기술의 기관차가 되여 내달린 한용철, 윤력룡, 황봉철, 손영화동무를 비롯한 탄광일군들의 헌신과 노력이 진하게 깔려있다.

지금 탄광일군들은 생산장성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더 많이 해결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할 신심에 넘쳐있다.

일군들의 뒤를 따라 탄광로동계급속에서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생산장성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 더욱 고조를 이루고있다.

오늘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앞에는 자신들부터가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생산확대와 경영관리개선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고원탄광 일군들처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발동해나갈 때 어디서나 생산장성의 돌파구가 열리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반드시 점령할수 있다는것이 바로 우리가 찾게 되는 대답이다.

본사기자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해 이들처럼 품을 들이자

자강도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를 과학교육의 해로 명명해주시면서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자강도의 일군들이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데서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있다. 도안의 모든 교육기관들에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온 자강땅이 전례없는 교육중시열풍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있다.

북부산간지대에 위치한 자강도에서 최근 이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대답을 교육의 질은 교육조건과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품을 아끼지 않는 자강도 일군들의 남다른 사업기풍에서 찾아보게 된다.

우리도 주인이라는 관점이 중요하다

자강도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무엇보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주인은 교육자들과 함께 일군들자신이라는 확고한 관점이다.

교육사업을 관조자적립장에서가 아니라 앞채를 함께 메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주인의 본분을 다하려는 이런 관점이 최근시기 도안의 대학들과 학교, 과외교육교양기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사업에서 뚜렷한 전환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비결이다.

실례로 자강도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되는 대학입학원격시험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준비를 높은 수준에서 갖춘 도로 되였다.

이 사실이 전국의 교육자들과 일군들에게 주는 충격은 크다. 그도그럴것이 지난 시기에는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측면에서 앞섰다고 하는 다른 도의 대학들을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던 자강도의 교육기관들이 반대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높은 수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교육단위들로 된것이다.

저절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도당책임일군을 비롯한 자강도 일군들의 주인다운 실천새가 안아온 결실이다.

사실 자강도의 모든 대학들에서 올해부터 대학입학원격시험을 진행하게 된다는것을 알게 된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이 사업은 우선 교육기관들의 조건과 환경을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었던것이다.

어디서나 요구되는것이 자금이였지만 도의 일군들은 대담하게 교육부문의 조건과 환경개선에 선차적인 힘을 넣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12월초 도안의 모든대학들과 강계제1중학교, 자강도 배움의천리길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들에 모두 합하여 수백대나 되는 새 콤퓨터들이 한꺼번에 장만되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이 호뭇한 화폭의 창조자는 다름아닌 도의 일군들이였다.

사실 지난해 7월 한달동안에만도 도적으로 마련된 많은 콤퓨터와 액정텔레비존이 교육기관들에 가닿은것을 비롯하여 한해동안 늘어난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의 수도 미처 다 헤아리기 힘든 정도였다. 그런데 그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많은 량의 콤퓨터를 마련하여 보내주었으니 도안의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육자들이 받은 감동은 대단히 컸다.

《도안의 모든 대학들에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이 갖추어짐으로써 우리 자강도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되고있는 대학입학원격시험준비사업과 교육의 질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제일 앞서나갈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구축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도인민위원회일군 김금향동무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원격시험의 성과적보장은 물론 앞으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수준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게 된 도안의 모든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도의 일군들이 대학들과 학교들을 하나씩 담당하고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왔다. 그렇게 하여 해결된 문제들도 사실 적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사업은 대체로 해당 학교와 후원단체사이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있었다. 즉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후원단체를 발동하여 해결해주면 좋고 그렇지 되지 못하면 산골에서 이름하면 된다는 식의 관점과 립장에서 이 사업에 림하고있는 현상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사업에 대한 통이 큰 지원을 보장하지 못하고 중요하게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사업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가져오지 못하게 된 기본원인의 하나로 되고있었다. 즉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교육사업의 방조자라는 인식을 완전히 뿌리뽑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이 그릇된 관점부터 바로잡아주기로 하였다.

교육사업의 주인은 도의 일군들자신이며 교육사업은 마땅히 도적인 사업으로, 그것도 첫자리에 놓고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이 이들의 확고한 관점이고 립장이였다.

그리하여 도당위원회에서는 자강도 배움의천리길학생소년궁전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통이 큰 전투목표를 세우고 도적인 중요한 사업으로 완강하게 진척시키는 실천과정을 통하여 모든 일군들의 마음속에 교육사업의 주인은 다름아닌 일군들자신이라는 확고한 관점이 자리잡도록 하였다.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북방의 강추위속에서 비닐덧집을 짓고 기초까지 들어낸 건물자리에 5층짜리 건물과 덩지큰 체육관을 새로 일떠세운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강계시가 생겨 한겨울에 건설하는것은 처음 본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던 사람들은 완공된 궁전의 내외부를 돌아보면서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터치였다.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한 건축술을 과시하며 현대적으로 완공된 궁전은 후대들을 위한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한시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할수 없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새겨안고 산골에도 벌방 부럽지 않은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환경을 갖추어주려는 일군들의 진취적이고 혁명적인 일본새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사고방식을 바꾸면 사업방법에서도 전환이 일어나기마련이다. 학생소년궁전의 새로운 모습이 도안의 모든 일군들에게 준 충격은 컸다.

그 과정은 곧 교육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태도와 관점이 새롭게 탈라진 나날이기도 하였다.

도의 일군들이 이렇게 직접 주인이 되여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는 과정에 도안의 많은 교육기관들이 그 면모를 몰라보게 일신하였다.

강계제2사범대학에서 도당책임일군이 직접 마련해준 100여개의 태양빛전지판과 여러대의 풍력발전기로 교육사업과 학생들의 생활조건보장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생산하고있는 사실, 강계교원대학에서 도에서 보장해준 많은 량의 전설자재로 기숙사전실을 본때있게 밑고나가고 강계제1중학교와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에서 교사내부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체육관을 개건하기 위한 작전들을 배심있게 펼쳐나가고있는 사실 등이런 일들을 다 꼽자면 참으로 많다.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도의 모든 일군들이 이처럼 당의 새 세기 교육혁명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교육사업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전개해나갈 때 결코 안아오지 못할 기적이란 없는것이다.

진심으로 도와주는 기풍

자강도의 교육기관들을 위해 하는 과정에 우리가 받은 또 하나의 충격은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모두가 신심에 넘쳐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는것이였다.

이 신심과 배짱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인가.

우리는 그 대답을 진심이라는 두 글자에서 찾게 된다.

물론 후대교육사업이 국사중의 국사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교육지원은 어디서나 활발하게 벌어지는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그시그시 필요한 교육설비들과 자재들을 얼마간 해결해주는것으로 만족해하는 현상들도 없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강도 일군들의 사업에는 남다른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기관들에서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을 하나로 밀착시켜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꾸려놓고 그 운영과정을 통해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고있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교육기관들이 자체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나갈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주고 이 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주고있는것이다.

자강도의 많은 대학들에서는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을 밀착시켜나가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첨단기술제품들은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교육기관들이 얻는 실리도 대단하다.

이것 역시 저절로 이루어진것은 아니다. 여기서도 활성제의 역할을 한것은 바로 도의 일군들이였다.

실례로 강계의학대학에서 개발한 잠업용소독약을 들수 있다. 얼핏 보면 별로 크지 않은 문제같지만 사실 이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여 도를 잠업도, 비단도로 전변시켜나가는데서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이다.

교치생산에서 없어서는 안될 이 약을 지난 시기에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다싶이 하고있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싼것으로 하여 교치생산단위들에서는 많은 애로를 느끼고있었다.

이런 문제를 포착한 도의 일군들은 과학연구력량이 그른한 강계의학대학에 이 과업을 주고 도에 흔한 원료를 리용하여 수입약보다 더 효능이 높은 새형의 잠업용소독약을 연구완성하도록 적극 밀어주었다. 하여 수입약에 대비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도 교치생산을 대폭 늘일수 있는 새로운 약이 개발되였다.

도당책임일군은 즉시 이 문제를 도적인 문제로 전환시키고 과학기술보급망을 비롯한 여러 공정들과 계기들을 리용한 선전과 보여주기사업을 널리 조직하였다. 효과는 예상외로 컸다.

저저마다 도입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섰던것이다. 결과 교치생산계획을 지난해에는 110%로 넘쳐 수행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이 얻은 실리도 컸다. 교원, 연구사들속에서 첨단연구에 대한 의욕이 비할바 없이 높아진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 대학의 물질기술적토대도 보다 튼튼히 쌓아졌으니 이것이야말로 땅먹고 알먹고 둥지털어 불때는 격의 일거다득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각 대학들에서 현실에 절실히 필요한 연구종자들을 찾아쥐고 실현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는 하나의 계기로 되였다. 강계농림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서 산림복구전투와 농작물비배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테라코렘과 종자처리제, 종자피복제에 대한 연구와 생산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교치건조로개발을 비롯한 과학연구과제들도 수많이 해결하였다.

그럴수록 도의 일군들은 대학들에서 진행되는 과학연구사업이 현실에서 그 온을 나타내도록 적극 밀어주는 사업을 놓치지 않았다.

도안의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계농림대학에서 연구완성한 테라코렘이 심지 물을 얼마만큼 흡수하는가를 실물로 보여주고 대학에서 생산하는 외장제의 우월성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도적으로 광범하게 리용하도록 한것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도의 일군들은 대학들에서 과학연구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도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강계농림대학에서 실리가 큰 유모란재배와 잣나무접에 대한 연구과제를 빠른 시일안에 끝낼수 있도록 덩실한 온실도 마련해주었으며 한 연구사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것을 알고는 귀한 보약도 구해주고 연구사업을 더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재를 마련해준것도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또한 한창 일떠서고있는 현대적인 양묘장의 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전문분야의 두뇌진들이 모여있는 강계농림대학에 맡길 계획을 세웠으며 그 수요가 날을 따라 높아가는 잠업용소독약생산기지를 강계의학대학에 번듯하게 꾸려주어 대학의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로 리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도안의 교육기관들에서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실현을 위한 통이 큰 목표를 경쟁적으로 세우고 줄기차게 실천해나가도록 적극 추동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도에서는 각 대학들에서 많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하여 교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벌리는 한편 교육을 현실에 밀접히 접근시키고 대학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도록 하고있는데 그 효과가 대단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교육기관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립장,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 일군들이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인재강국,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빛내이려는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교육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진심을 바치며 사색하고 실천해나갈 때 어느 도, 어느 군에서나 교육조건과 환경을 결정적으로 일신하기 위한 방도를 찾을수 있으며 이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자강도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강 진 형
본사기자 한 경 철

강안고급중학교에서 — 본사기자 리진명 촬영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선교구역 교육조건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집체적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주는 공연무대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 원산시에서 공연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겨안고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의 전렬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강원도정신창조자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공연이 1월 28일부터 원산시에서 진행되고있다.

강원도안의 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실현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총정으로 받들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강원도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공연무대에는 녀성5중창 《우리의 김정은동지》, 남성독창과 방창 《인정의 세계》, 녀성독창 《그리움은 나의 행복》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이 땅우에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꽃피워주시고 만리마로 내닫는 거창한 전변의 시대를 열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감사의 정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바이올린합주 《우리는 만리마기수》, 색스폰독주 《바다의 노래》, 녀성독창 《바다 만풍가》 등의 종목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새해의 행군길에 자랑찬 위훈을 새겨가고있는 도안의 근로자들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만리마시대의 본보기정신인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에게 긍지와 랑만을 안겨주는 녀성독창 《강원도처녀가 제일 곱대요》, 혼성4중창 《처녀의 노래》, 남성5중창 《귀향의 노래》는 공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였다.

일편단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 떨쳐나선 강원도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공연은 기악과 노래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끝났다.

공연은 계속된다.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우리는 지금 굴지의대규모기계제작기지 룡성기계련합기업소 한복판에 서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로동계급의 대집단이 있는 룡성이다.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하는 전세대들의 투쟁전통이 살아숨쉬는 이 땅에서는 새해벽두부터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붙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얼마전 련합기업소앞에는 나라의 전력생산에 크게 이바지할 대상설비를 생산함에 대한 과제가 제기되였다.

가장 난문제로 나선것은 직경이 7.3m나 되는 선회치차가공이였다.

더우기 룡성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것은 기업소의 4.3m호뻥반을 리용한다고 하여도 필요한 지구장비를 완성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품이 든다는 사실이였다.

이런 정황앞에서 책임일군들은 긴장감을 감출수 없었다.

전력생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설비생산을 제기일에 끝내는가, 못 끝내는가 하는 관건적고리가 바로 선회치차가공에 달려있지 않는가.

그 시각 이들의 눈앞에는 격동하는 만리마시대의 숨결을 지켜 자신들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전력생산자들의 줄기찬 투쟁모습이 어려왔다. 비약하는 조국에 힘찬 맥동을 더해주기 위해 수천척막장에서 결사전을 벌리는 미더운 한무들이 자신들을 지켜보는것만 같았다.

그런데 바로 우리때문에 그들의 땀이 헛되게 된다면, 조국의 전진이 더디여진다면?

기업소일군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막아선 난관을 뚫고나갈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낮에 밤을 이어 부단한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기술일군들속에서 좌료보뻥반을 치차가공에 리용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새로운 착상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의 제안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좌료보뻥반으로 치차이빨을 가공한다는것은 기성관념에 어긋난다는것이였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것을 바늘구멍으로 황소를 들이미는것만큼이나 불가능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속에 이들은 밤을 새워가며 콤퓨터모의를 진행하여 끝내 좌료보뻥반에 의한 치차제작방안의 과학성을 담보해냈다.

종전방식에서 벗어나 테블을 회전시키고 주축을 치차원호중심의 편차량만큼 X축방향으로 이동시키자는 제안은 곧 현장에 도입되였다.

몇해전에 기업소자체의 힘으로 CNC화한 대형공작기계직장의 155mm보뻥반에서 이들의 창의고안은 단번성공에로 이어졌다.

이 혁신적인 방안으로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호뻥반에 비해 가공시간을 1/6로 줄여 대상설비과제를 제기일내에 보장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이 성과에 화답하여 소재보장부문의 로동자들은 종전의 룡주모양이 아니라 치차이빨모양의 소재를 보장함으로써 가공시간을 대폭 단축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지금 해당 대상설비생산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며 기업소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누구나 한목소리로 말한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전진해나가는 진군길에서는 언제나 만리도 지척이라고.

심 학 철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곳

안악군농민휴양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데 맞게 현대적인 휴양소를 더 많이 건설하고 휴양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충분히 보장해주어 그들이 휴양기간에 문화정서생활과 휴식을 마음껏 즐기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서해명승 구월산에 자리잡고있는 안악군농민휴양소에서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는 농업근로자들의 행복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울려퍼지였다.

그 밤은 모습에는 휴양생들에게 당의 은정깊은 사랑이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있는 소장 리병학동무를 비롯한 휴양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노력이 슴배여있다.

휴양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많은 돼지와 염소, 오리, 게사니를 길러 휴양생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또한 온실에서 자래운 푸르싱싱한 남새와 애써 심고 가꾼 수많은 감나무들에서 수확한 맛좋은 감들도 휴양생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휴양소에서는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조명도 자체로 보장하고있다.

휴양소의 일군들은 휴양생들의 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휴양생들은 구월산의 경치를 무감하고 혁명사를 비롯한 력사유적들을 돌아보면서 이곳을 인민의 유원지로 꾸려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휴양기간 그들은 또한 장기, 윷놀이를 비롯한 민속놀이와 배구, 탁구, 롱구경기를 진행하면서 즐거운 휴식의 나날을 보내였다.

저녁이면 지난해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경험을 나누는 발표회도 진행되였는데 이를 계기로 휴양생들은 올해농사에서도 또다시 풍작혼을 부를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경치좋은 곳에 훌륭히 꾸려진 휴양소에서 즐거운 휴양생활을 마친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고마움을 가슴뜨겁게 느끼면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결의들을 안고 일터로 떠나갔다.

본사기자

웰남특명전권대사 연회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웰남사회주의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7돐에 즈음하여 람 비엣 홍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외무성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웰남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웰남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호지명주석과 함께 마련하여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정세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웰 푸 퐁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웬 다이 팡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스위스련방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스위스련방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스위스련방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한대성동지가 임명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뜨거운 격정으로 터친 심장의 목소리

평천구역에서 사는 영예군인들의 생활에서

영예군인들에게 구역인민위원회 책임부원 김은희동무는 11월 1일부터 영예군인동지들은 구역인민병원에서 보양생활을 하게 된다고 다정히 말했다.

영예군인들은 모두가 놀랐다. 온 나라가 북부지역 피해복구전투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는 때에 보양생활이라니.

놀람과 의혹에 찬 영예군인들에게 김은희동무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며칠전 긴급히 열린 구역의 일군들과 기관, 기업소일군들의 긴급협의회에서 구역당책임일군은 의제는 하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꽃방석에 앉혀 우대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신 영예군인들의 보양을 조직하자는것이 떨쳐나섰다. 여러가지 식료품을 성의껏 마련한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그리고 구역편의봉사사업소와 구역종합식당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정든 집처럼 아늑하게 꾸려진 호실에서 그들의 보양생활이 시작되였다.

영예군인들이 보양생활을 하고있는 구역인민병원의 호실로는 매일이다싶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줄 몰랐다. 구역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병원으로 자주 찾아와 보양생활정형을 료해하고 영예군인들의 가정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주었고 최명남, 허승경, 류춘호, 우광혁동무를 비롯한 구역검찰소의 일군들이 갖가지 영양식품을 마련해가지고 수시로 찾아왔다.

병원에서 살다싶이 하며 영예군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 담당의사 차혜심동무와 늘 밝은 얼굴로 기쁨을 주고 웃음을 안겨준 담당간호원 그리고 혈육의 정으로 영예군인들을 치료해준 과장을 비롯한 내과의 의료일군들모두가 진정 한집안식솔, 친혈육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즐거운 보양생활의 하루하루가 흘러가던 어느날 저녁 영예군인들이 구역의 일군들과 한자리에 앉아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며 텔레비존화면에 눈길을 주고있을 때였다. 화면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중앙동물원을 찾아 한껏 웃음을 터치는 근로자들의 모습이 비쳐지자 무지중 한 영예군인의 입에서 《한번 가보았으면…》 하는 말이 조용히 울려나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영예군인들은 영문도 모른채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중앙동물원에 이르러서야 영예군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생각도 헤아리고 구역에서 중앙동물원참관을 조직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어찌 그뿐이랴. 미래과학자거리의 영화관과 류경장미원 등 구역의 여러곳에서의 문화정서생활의 나날은 또 얼마나 희열과 랑만으로 가슴부풀게 하였던가.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보양생활의 나날을 보내며 영예군인들은 생각하였다.

정녕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자본주의사회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뇌리를 세차게 쳤다.

40일이라는 보양생활은 이렇게 흘렀다.

보양생활을 끝마치는 날이 왔다. 그날 영예군인모두에게 갖가지 상비약품들이 든 함이 차례졌다. 가슴속에 차오르는 뜨거운 격정으로 영예군인들은 마음을 진정할길 없었다.

영예군인들은 한결같은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영예군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에게 돌려지는 어머니당의 은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충정의 꽃을 피워갈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현 경 철

얼마전 우리와 만난 평천구역 해운2동에서 사는 특류영예군인 김경남동무는 가슴속에 차오르는 뜨거운 격정을 누를길 없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영예군인들은 꽃방석에 앉혀 우대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희망찬 새해의 아침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김경남동무는 격정에 넘쳐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다시금 되새기고있었다.

문득 초인종소리가 나더니 뜻밖에도 구역당위원장 리영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집으로 들어섰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다정히 말하고난 구역당위원장은 보양생활을 한 후 건강은 어떤가고 물었다. 영예군인의 건강상태며 가정생활을 세세히 알아보고나서 그는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아무때나 찾아오라고 다정히 일렀다.

그로부터 얼마후 최명남동무를 비롯한 구역검찰소의 일군들이 지성어린 물자를 안고 집으로 들어섰다.

그후에도 초인종소리는 그칠새 없었다. 김경남동무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불현듯 잊을수 없는 지난해의 보양생활이 눈앞에 떠올랐다.

지난해 10월말 김경남동무를 비롯한 14명의 영예군인들은 구역인민위원회로 오라는 련락을 받았다. 영문을 모르고 모여온 영예군인들에게 구역인민위원회 책임부원 김은희동무는 11월 1일부터 영예군인동지들은 구역인민병원에서 보양생활을 하게 된다고 다정히 말했다.

영예군인들은 모두가 놀랐다. 온 나라가 북부지역 피해복구전투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는 때에 보양생활이라니.

놀람과 의혹에 찬 영예군인들에게 김은희동무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며칠전 긴급히 열린 구역의 일군들과 기관, 기업소일군들의 긴급협의회에서 구역당책임일군은 의제는 하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꽃방석에 앉혀 우대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신 영예군인들의 보양을 조직하자는것이라고 하면서 강조했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귀중한 혁명동지들인 영예군인들을 꽃방석에 앉히고 그들이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잘 돌봐줍시다.》

꽃방석, 사실을 알게 된 영예군인들은 가슴이 후더워났다.

영예군인들을 위하여 온 구역이 떨쳐나섰다. 여러가지 식료품을 성의껏 마련한 평천고려약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그리고 구역편의봉사사업소와 구역종합식당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정든 집처럼 아늑하게 꾸려진 호실에서 그들의 보양생활이 시작되였다.

영예군인들이 보양생활을 하고있는 구역인민병원의 호실로는 매일이다싶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줄 몰랐다. 구역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병원으로 자주 찾아와 보양생활정형을 료해하고 영예군인들의 가정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주었고 최명남, 허승경, 류춘호, 우광혁동무를 비롯한 구역검찰소의 일군들이 갖가지 영양식품을 마련해가지고 수시로 찾아왔다.

병원에서 살다싶이 하며 영예군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 담당의사 차혜심동무와 늘 밝은 얼굴로 기쁨을 주고 웃음을 안겨준 담당간호원 그리고 혈육의 정으로 영예군인들을 치료해준 과장을 비롯한 내과의 의료일군들모두가 진정 한집안식솔, 친혈육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즐거운 보양생활의 하루하루가 흘러가던 어느날 저녁 영예군인들이 구역의 일군들과 한자리에 앉아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며 텔레비존화면에 눈길을 주고있을 때였다. 화면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중앙동물원을 찾아 한껏 웃음을 터치는 근로자들의 모습이 비쳐지자 무지중 한 영예군인의 입에서 《한번 가보았으면…》 하는 말이 조용히 울려나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영예군인들은 영문도 모른채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중앙동물원에 이르러서야 영예군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생각도 헤아리고 구역에서 중앙동물원참관을 조직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어찌 그뿐이랴. 미래과학자거리의 영화관과 류경장미원 등 구역의 여러곳에서의 문화정서생활의 나날은 또 얼마나 희열과 랑만으로 가슴부풀게 하였던가.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보양생활의 나날을 보내며 영예군인들은 생각하였다.

정녕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자본주의사회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뇌리를 세차게 쳤다.

40일이라는 보양생활은 이렇게 흘렀다.

보양생활을 끝마치는 날이 왔다. 그날 영예군인모두에게 갖가지 상비약품들이 든 함이 차례졌다. 가슴속에 차오르는 뜨거운 격정으로 영예군인들은 마음을 진정할길 없었다.

영예군인들은 한결같은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영예군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에게 돌려지는 어머니당의 은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충정의 꽃을 피워갈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현 경 철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장장 70여년에 걸치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거센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고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민족이 외세에 의해 민족분렬의 아픔과 국토량단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올해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해이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깊은 해로 빛내이려는것이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온 민족이 떨쳐나서야만 실현될수 있는 거족적인 애국위업이다.

조국통일은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강점을 끝장내고 갈라진 민족을 다시 하나로 합치기 위한 위업으로서 그 주인은 마땅히 북과 남, 해외의 조선민족이다.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면 민족이 망한다는것은 수난많던 우리 민족사에 새겨진 피의 교훈이다.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은 오직 그 민족자신이 주인이 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이 통일운동의 주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얼마나 원만히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조국통일위업은 어렵고도 간고한 위업이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며 조국통일위업을 힘차게 떠밀어나가자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애국의 뜻과 의지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주체의 위력은 단결의 위력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조국통일위업을 힘차게 떠밀고나가야 한다.

온 겨레가 조국통일운동에 궐기해나서는것은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극도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남조선의 현 괴뢰집권세력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와 성의있는 노력들을 외면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함으로써 동족대결상태를 력대 최악으로 격화시켰다. 괴뢰패당이 반공화국제재압박에 미쳐날뛰면서 간신히 온영되던 개성공업지구마저 폐쇄해버림으로써 북남관계는 리명박역도의 집권시기보다 더욱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

《북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해 고아대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책동도 날로 악랄해지고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최악의 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그대로 둔다면 우발적인 사건도 전면전쟁의 불씨로 될수 있다. 2015년의 8월사태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지면 우리 민족은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된다.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혹한 현실은 해내외의 온 겨레가 북남대결의 력사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전진을 추동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해내외의 우리 겨레가 오랜 세월에 걸쳐 외세에 의해 갈라져살고있는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중상하고 반목질시하며 대결시대를 지속시키는것은 력사와 후대앞에 돌이킬수 없는 죄를 짓는것으로 된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이야말로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과제이다.

온 민족이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련대련합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된 민족의 힘은 누구도 당해낼수 없다. 북남관계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사변적성과들을 이룩한 6.15통일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은 민족의 단합된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지금 내외반통일세력이 북남관계개선을 반대하면서 조국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고있지만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한다면 뚫지 못할 난관이 없고 극복 못할 장벽이 없을것이다.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운동을 적극 활성화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민족의 운명,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북과 남, 해외가 따로 있을수 없으며 당파나 소속,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구애될수 없다.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래왕하여야 한다.

접촉과 래왕, 련대련합과 공동행동은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물리치며 서로 접촉하고 래왕하며 련대련합하고 공동행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옹호고수하고 리행하며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시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로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은 극도에 처한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장래와 관련한 중대사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의의깊은 자리로 될것이다.

민족의 절절한 통일념원을 하루빨리 풀어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의지가 담겨진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우리 겨레는 지금 커다란 신심과 락관을 안고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애국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것이다.

리 성 호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해 특색있는 기여를 해나가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련대활동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올해신년사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련대활동으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월 20일 중국 심양에서 여러 중국국적동포단체 회장들과의 설맞이모임을 가지고 신년사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진행하였다.

최은복의장을 비롯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중국료녕성조선족로인협회 상무부회장 겸 심양조선족로인협회 회장, 심양조선족로교사협회 회장, 심양지원군로전사강연단 단장 등 재중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최은복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희망찬 새해를 맞는 여러 조선족동포단체 회장들을 축하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올해신년사 내용을 해설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해주시고 그 관철을 위해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뜨겁게 호소하시면서 그를 위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것과 함께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며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릴데 대하여 천명하심으로써 민족공동의 념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설명하였다.

지난해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여러 동포단체들사이의 련대련합활동과정을 통하여 민족적단합과 단결이 보다 강화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모든 동포들이 몸은 비록 이국땅에 있어도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슬픔을 같이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해 특색있는 기여를 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모임에서는 재중동포단체 회장들이 발언하였다.

그들은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의의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내용과 조국의 정세를 상세히 알려준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총련합회와 접촉하는 과정에 조국을 더 잘 알게 되였고 조중친선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새삼 느끼게 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여러차례 조국을 방문하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화발전하고있는 조국의 모습을 더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조선민족으로서 이에 대해 매우 기쁘고 긍지스럽게 생각한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심양시안의 모든 조선족동포단체 성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물리치고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로 우뚝 솟아올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의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예술공연을 관람하면서 노래곡조에 맞추어 춤을 추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킨 죄악부터 심각히 반성해보아야 한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그것을 공개한 때로부터 59년이 되였다.

1957년 7월 15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핵무장화착수를 공공연히 선포한 미국은 1958년 1월 29일 《오네스트 존》핵미싸일을 남조선에 배치하였다는것을 공식발표하였으며 2월 3일에는 미1군단비행장에서 280㎜원자포와 《오네스트 존》핵미싸일을 공개하였다.

미국은 비핵국가와 지역에 핵무기를 반입할수 없게 되여있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나온 이후에도 그를 란폭하게 위반하고 남조선에 155㎜곡사포용핵포탄과 각종 핵미싸일, 전투폭격기적재용핵폭탄, 핵적재용 《F-16》전투폭격기들을 계속 끌어들이였으며 지어 《20세기 악마의 무기》로 공인된 중성자탄, 《퍼싱 2》중거리핵미싸일까지 남조선에 반입하였다.

각종 핵무기와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화약고로 만든것도 미국이며 우리를 핵선제타격대상으로 규정하고 《3단계맞춤형억제전략》, 《작전계획5015》를 비롯한 북침핵전쟁전략과 계획에 따라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실동연습을 빈번히 벌리면서 우리에게 전대미문의 핵위협과 공갈을 일삼아온것도 핵악마 미국이다.

최근에도 미국은 핵항공모함타격단과 《B-52》, 《B-1B》, 《B-2》 등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으로 배치해놓고 북침핵전쟁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할 위험천만한 기도를 꺼리낌없이 드러내놓고있다.

남조선의 력대 친미보수괴뢰당은 미국이 우리 민족을 수십수백번 멸살시키고도 남을 위험천만한 핵무기를 남조선에 퍼붓어 전개해놓는데 적극 가담해나섰을뿐아니라 이 땅에 핵참화를 들씌워 북침핵전쟁책동에도 광분해왔다.

특히 박근혜괴뢰당은 미국상전과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는것으로도 성차지않아 남조선에 미국의 핵전쟁피물인 《싸드》를 끌어들이기로 하였으며 지어 《능동적억제전략》이니, 《4D작전계획》이니, 《대량응징보복전략》이니 하는따위의 북침선제공격계획까지 짜놓고 그 실행에 미쳐날뛰는것으로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괴뢰호전광들은 미국방장관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핵전쟁모의판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조선반도핵문제발생의 장본인이며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기 위해 발광하는 핵미치광이, 핵전쟁도발의 원흉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우리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핵위협과 공갈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핵억제력을 갖추는데로 나가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우리가 오늘과 같이 수소탄을 포함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최첨단전략타격수단들을 갖추게 된것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적조치이며 평화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키고 우리를 핵으로 위협해온 미국과 그 하수인인 괴뢰패당이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아닌보살하고 도리어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드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무언하긴대 미국과 전쟁하수인 괴뢰패당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엄중히 위협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도, 핵무기고도화조치도 없었을것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핵위협》을 운운하기 전에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북침핵전쟁책동에 광분해온 저들의 죄악부터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

우리의 핵무장력은 민족의 존엄이고 자주권이며 조선반도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이다.

그것은 민족의 더없이 귀중한 재보이며 죽지 않는 핵을 무지비하게 내려치는 정의의 핵마치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핵공격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군사대국,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으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극악무도한 핵위협공갈은 도리어 우리의 핵공격능력을 시시각각으로 강화해주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지금 미국과 괴뢰패당이 남조선에 숱한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하기 위한 전쟁불장난을 그칠사이 없이 벌리고있지만 그것은 제 죽음을 모르고 설치는 어리석은 자들의 가소로운 추태이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국방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미렌스럼게 대조선제재와 압박, 북침핵전쟁소동에 매달리다가 쓰디쓴 패배의 수치를 안고 력사의 뒤길로 영원히 사라진 오바마일당과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날뛰다가 민족의 버림을 받고 《슬쉬는 미이라》가 되여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는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이 그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경거망동은 자멸의 길을 재촉할뿐이며 분노에 찬 우리의 핵불벼락을 피할수 있는 최상의 방도는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 자숙하는것이다.

다시한번 엄숙히 선언한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얼토당토않은 《북핵위협》과 《도발》을 떠들며 일방적인 《북비핵화》를 떠들것이 아니라 남조선에 끌어들인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고 철폐하며 세계앞에 검증받는 남비핵화부터 선행하여야 한다.

또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여 벌리는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을 걷어치우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해야 하며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겠다는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만약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계속 일삼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핵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우리는 동방의 핵강국, 당당한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단계단으로 보여주면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누구와 상대하고있으며 대세가 어떻게 흐르고있는지 똑바로 보고 이제라도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주체106(2017)년 2월 3일
평 양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대답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 《제재결의》들을 합리화해보려는 궤변들을 늘어놓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지금까지 조작하고 꾸며낸 모든 반공화국 《제재결의》들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와 공인된 국제법들을 란폭하게 무시한것으로 하여 그 비법성이 날이 갈수록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

특히 봉쇄형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들은 우리 인민들의 생존권과 개발권을 전면 부정하고 현대문명을 파괴하여 우리 사회를 중세기적인 암흑세계로 되돌려보려는 반인륜, 반문명행위인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제재결의》들이 아무런 법률적근거도 없으며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와 유엔헌장에 명기된 국제관계의 제반원칙들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국제법률계에서도 결론을 내린 문제이다.

1966년 미국이 이전 로데시아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한데 대한 앙갚음으로 유엔헌장 제39조를 내대고 유엔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제재결의》232호를 만들어냈을 때 국제법률계는 《제재결의》의 비법성을 조목조목 까밝히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월권행위를 강하게 문제시해나섰다.

우리는 미국이 공인된 국제법들을 무시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권능을 악용하여 결의아닌 《결의》들을 계속 조작해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유엔사무국에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뉴욕이나 제네바에서 조직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법도 모르는 조선문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내세워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특정국가의 행동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다느니, 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를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제재를 가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등의 제제목은 궤변들을 아직도 늘어놓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일반적권능을 규제한 유엔헌장 제39조는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로 될수 없으며 그 어느 국제법에도 특정국가의 핵시험이나 위성발사가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된것은 없다.

또한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는 조약 제10조에 따르는 절차를 밟은 합법적인것이며 조약문 어디에도 탈퇴가 다른 나라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제한 문구자체도 없다.

미국의 조선문제전문가라는 자들이 늘어놓는 궤변은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열고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공개적으로 론의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법치와 국제법규범준수를 제창하는 유엔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지체없이 연단을 조직하여 국제사회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것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와 법률단체들이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공개적으로 론의하는 국제적인 연단을 조직할데 대한 우리의 제기에 적극 호응해나설것을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재판소의 차별적인 판결에 항의

【도쿄 2월 1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 오사까조선학원 성원들과 재일동포들, 일본시민들이 1월 26일 조선학교에 대한 오사까지방재판소의 차별적인 판결에 항의하였다.

1974년부터 오사까조선학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오사까지방당국은 2010년 3월 난데없이 부당한 요구조건을 제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일것을 학원측에 내리먹였다.

이것이 거부당하게 되자 오사까지방당국은 2011학년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것을 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맞서 학원측은 2012년 9월 학생들의 인권과 배움의 권리를 짓밟는 오사까부와 오사까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수십차례의 변론을 통해 보조금지급중지결정의 부당성을 폭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까지방재판소측은 오사까지방당국의 편을 들면서 끝내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것이다.

이에 항거하여 원고측은 즉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보조금지급중지문제가 조선학교와 조선학생들을 파탄으로 삼는 극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규탄하였다.

재판소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오사까부와 오사까시의 형식적인 요구조건에 맞게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성명이 발표되였다.

성명은 조선학교만을 보조금제도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것은 민족교육의 권리를 부정하고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풍조를 조성하는것이라고 까밝히면서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저녁 오사까의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이 오사까지방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애국의 1세가 세우고 지켜온 학교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조선학교라는 마음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정의의 투쟁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엔이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철회하고 지원제도를 적용하며 지방자치체가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것을 일본당국에 권고한것자체가 민족교육의 정당성을 립증해주는것이라고 그들은 밝혔다.

이번 판결을 놓고 국가적으로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정부의 속심을 다시한번 알게 되였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민족교육을 사수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온 1, 2세동포들처럼 굳센 의지를 안고 투쟁하는 모습을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초불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월 28일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이 군청앞에서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성주가 《싸드》배치지역으로 선정된데 항의하여 초불을 든지 200일이 되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초불투쟁을 벌려왔다고 밝혔다.

전쟁을 불러오는 《싸드》배치를 반대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는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미국에만 리익을 가져다주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싸드》와 같은 전쟁무기는 가고 평화가 와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신문은 이날의 투쟁소식을 전하면서 《싸드》반대초불을 든 주민들은 외부인이 생각하는 나약한 농민, 촌부들이 아니였다, 《싸드》와 관련한 주민들의 생각은 조선반도정화와 잇닿아있다, 200일 초불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괴뢰패당의 반인민적만행을 규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드러나는 폭압사건의 진상

세인을 경악케 한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은 지금까지 묻혀있던 다른 사건들의 흑막들까지 벗겨놓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최순실과 붙럼불처럼 얽힌 박근혜와 청와대패거리들에 대한 조사가 심화되는 과정에 통합진보당강제해산사건의 진상도 시시히 드러나고있다.

얼마전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이 죽기 전에 작성한 비망록이 공개되였는데 거기에는 2014년 10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였던 김기춘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해산판결을 년내에 선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적혀있다.

주목되는것은 김기춘의 지시와 괴뢰헌법재판소 소장 발언의 련관성이다. 비망록에 해당 내용이 기록된 때로부터 2주일후에 괴뢰헌법재판소 소장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해산심판결정을 년내에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한편 청와대패거리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선고가 내려지기 20일전에 벌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진보당소속 의원들의 지위박탈문제를 론의하였다. 이것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괴뢰헌법재판소의 강제해산결정이 박근혜역도와 청와대패거리들의 각본과 의도적인 모략에 따른것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지난 2013년 남조선에서는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다. 이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스산한 《종북》광풍이 몰아쳤다. 민주주의와 련북통일을 주장하고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과 독재통치, 동족대결책동을 폭로단죄하는 투쟁에 앞장서온 통합진보당에 하루아침에 《종북정당》, 《내란음모세력》이라는 딱지가 붙고 그 관계자들의 집과 사무실들이 강제수색당하였다.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 리석기와 당의 핵심인사들이 《북과 협력하여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몰려 줄줄이 족쇄를 차고 감옥에 끌려갔다. 괴뢰정권에 의해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구속된것은 군사독재가 종말을 고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였다.

박근혜패당이 준비한 통합진보당해산작전은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 튀아먹듯 급속도로 추진되였다. 괴뢰당국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안과 정당활동중지가처분신청을 내기 바쁘게 《새누리당》은 《리적단체강제해산법》이라는것을 발의하고 리석기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상정시키였다.

괴뢰보수패당이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리유로 들고나온 《증거》들이라는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허위와 모략, 날조로 일관된것이였다. 그것은 괴뢰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과정에 낱낱이 드러났다. 하지만 박근혜패당은 2014년 12월 끝끝내 괴뢰헌법재판소의 거수기들을 내몰아 15년동안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을 선포하였다.

통합진보당강제해산사건은 극악한 파쑈적란동이였다. 그것이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들을 말살함으로써 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지향을 철저히 짓밟아버리고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수습하며 《정권》안보를 실현해보려는 비렬한 음모책동의 결과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진보민주세력을 겨냥한 파쑈광풍의 무지막지한 탄압소동을 규탄하며 《리석기내란음모사건》, 통합진보당강제해산사건의 진상을 밝힐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런데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의 일단이 폭로되게 되였다. 이것은 남조선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초불집회에서는 《색깔론》, 《종북》몰이의 피해자인 통합진보당의 리석기의원을 석방하라는 함성들이 터져나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작가는 이런 민심을 반영하여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취급한 책을 출판하였다. 도서는 리석기의원과 그의 동료들을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 날개의 밀랍이 녹아 에게해에 떨어진 신화속의 주인공에 비유하면서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들이 《내란음모》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있다고 서술하고있다.

도서필자는 특대형부정추문사건으로 박근혜《정권》의 죄악이 드러났지만 가장 극악한것은 《리석기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강제해산사건이라고 하면서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책을 출판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바 있는 신문 《한겨레》의 기자는 도서가 사실자료들에 기초하여 당시의 사건을 훌륭히 재현하였다고 평하였다. 다른 한 신문기자는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한 괴뢰정보원의 죄악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오래 가는 거짓말 없고 자루속의 송곳은 감추지 못하는 법이다.

박근혜패당이 그 무슨 《내란음모》니 뭐니 하며 통합진보당강제해산소동을 일으킨 그 불순한 흉계와 파쑈적망동의 내막을 완전히 밝혀낼 때가 되였다. 얼마전 전 통합진보당 대표 리정희는 김영한의 비망록이 공개된것과 관련하여 박근혜역도와 그 일당이 저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인민들앞에 통땅 터놓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민심을 거역하며 파쑈폭압과 매국반역에 열을 올리는자들은 비참한 파멸을 당하기마련이다.

본사기자 심 철 영

단 평 뻐다귀우리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유신》독재자인 제 애비의 뻐다귀를 우려먹으며 보수계층의 동정을 사보려고 하는것은 박근혜역도의 상투적수법이다. 부망산귀신이 다 된 주제에 아직까지도 더러운 명줄을 부지해보려고 발악하는 박근혜가 이번에는 설을 계기로 애비, 에미의 보를 찾는 자기 사진을 청와대홈페지들을 시켜 슬쩍 공개하는 놀음을 벌렸다.

평시에 자기의 사생활을 로출시키는것을 극력 꺼린다는 박근혜가 자기의 《성묘나들이》놀음에 대하여 사진까지 안받침하여 공개한 리유가 무엇이겠는가. 다름아닌 《박정희향수》를 불러일으켜 흩어진 보수세력을 다시 끌어모으고 과멸의 위기를 모면하자는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언론들도 《국정》통락사건은 물론 문예인요시찰명단작성 등 용납 못할 범죄행위가 련속 폭로되자 종말이 가까와옴을 느낀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여론반전을 시도한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박근혜역도의 최후종말은 아침에 불보듯 뻔한 일이다.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라도 잡는다고 파멸의 위기에 몰린 괴뢰역도가 진이 빠질대로 빠진 애비의 뻐다귀를 또다시 우려먹으려 하는것은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박근혜가 애비의 뻐다귀우리기에 기대를 걸것이 아니라 스스로 족쇄를 차고 감옥으로 가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야유조소하고있다.

최 진 향

우리의 위성발사는 그 누구의 시비거리가 될수 없다

일본방위성이 가고시마현에서 군사통신위성을 탑재한 《H-2A》로케트를 발사하였다. 위성은 《자위대》의 각 부대들에 대한 지휘통제와 정보공유에 리용된다고 한다. 일본의 군사당국자들은 이번 위성발사로 《자위대》의 전투능력을 보다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내놓고 떠들어대고있다.

일본의 우주개발이라는것이 순수 군사적목적을 추구하고있는 침략적인것이라는것이 말짱 드러났다.

지금까지 일본은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우주의 평화적리용을 위한것》이라고 표사하군 하였다. 국제무대에 나서기만 하면 우주군사화의 심각성에 대해 운운하기도 하였다.

오늘에 와서 보면 그것이 다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한갖 속임수에 불과한것이였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찍어말하면 일본은 《평화적목적의 우주개발》이라는 간판을 전면에 내걸고 그뒤에서는 딴짓을 하여왔다. 하기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은것은 아니다. 이미전부터 우주의 군사적리용에 대해 제창하면서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현대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군사위성들을 개발하고 발사하는것을 정책화하였다. 주변나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형운반로케트 《H-2A》로 정탐위성들도 적지 않게 쏴올렸다. 우주공간을 리용하여 군사적우세를 차지하자는것이다. 이번에 일본방위성의 위성발사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것이다.

인간의 복리와 문명발전을 위하여 평화적으로 리용되여야 할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공간을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 일본이야말로 세계의 규탄을 받아야 할 범죄국가이다.

문제는 우리가 평화적목적의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그렇게 악청을 돋구며 눈꼴사납게 놀아대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 어중이떠중이들이 이번에는 벼룩소리 한마디 내지 않고있는것이다. 일본방위성의 위성발사가 군사적목적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예 모르쇠를 하며 벙어리흉내를 내고있다. 돌발적인 사태에 라격을 받아 멍청이들이 되였는가. 결코 그런것은 아니다. 일본의 위성발사징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있었다. 이런것을 놓고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아연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치졸하고 비렬하다.

구태여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서 미국이나 그 누가 이래라저래라 하며 삐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우주를 개발하여 평화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 부여된 공통의 권리이다.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한 국제법은 없다.

우주조약에도 《우주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초우에서 국제법에 부합되게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발 및 리용되여야 한다.》고 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은 철저히 이에 준하여 행동하였으며 위성발사와 관련한 국제적규정에 따라 해당한 절차들을 밟았다. 이미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에 가입한 우리는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사전에 그 계획을 내외에 공개하였다. 우리의 위성이 궤도를 돌고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주변나라들은 물론 미국의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사령부까지도 확인하고 인정하였다.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는 처음부터 문제시될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뻔한 사실을 놓고도 강짜를 부리며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장거리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이고 국제화하였다. 그리고는 《설사 위성발사나 우주발사체라고 하여도 조선은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발사와 관련하여 그 어떤 형태의 기술협조도 진행할수 없다.》고 쪼아박은 날강도적인 《유엔결의》까지 날조해냈다.

우리의 위성발사가 실지 위협으로 되여서가 아니다. 원래부터 우리에 대한 체질적이며 병적인 거부감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을 하거나 일이 잘되면 심사가 뒤틀려 심한 발작증세를 나타내군 하였다.

미국은 뻑하면 우리가 탄도미싸일발사기술을 적용하여 위성을 발사하였다고 겁겁드는데 말도 되지 않는다.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대포가 아니라 탄도미싸일발사기술을 리용하여 위성을 쏴올리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이에 대해서는 일체 일언반구가 없다.

미국의 론리대로 위성발사기술이 문제시되여야 한다면 우리보다 먼저 위성을 쏘아올린 모든 나라들이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 같은 추종세력들이 위성을 발사할 때에는 입을 꾹 다물고있다가 유독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기만 하면 법석 떠들고있다. 그야말로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저들과 동맹국들은 아무때나 위성을 발사해도 문제시될것이 없고 오직 우리가 하는 위성발사만은 비법으로 된다는 미국의 론리는 날강도적인 궤변이다. 우리에게는 이런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문제시하면서 대조선《제재결의》를 만들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원래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위성발사를 문제시하고 취급하여야 한다면 모든 나라들의 위성발사문제를 다같이 한저울에 올려놓고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편견이나 이중기준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야 진짜 공정한것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처음부터 미국의 손락에 놀아나 우리의 위성발사를 놓고 시아비야하였다. 더부러없는 생억지였지만 우리는 위성발사의 평화적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서는 철저히 비밀로 되여있는 위성발사장까지 공개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이것을 애써 외면하고 미국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되받아외워대면서 우리의 위성발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이고 범죄시하였다. 이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오늘은 일본의 군사위성발사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맹국이라는데로부터 못 본척 하며 꿀먹은 벙어리처럼 놀아대고있어 세상사람들의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미국의 뒤통무니를 쫓아다니는 꼭두각시, 심부름군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망신을 당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런 지경에까지 굴러떨어지게 된데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자기의 주견을 세우지 못하고 미국에 추종한데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더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여있다. 실지 일본의 위성발사를 놓고 취하고있는 태도가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스스로 자기의 영상에 먹칠을 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위성발사를 놓고 이렇다저렇다 말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

이번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위성발사가 나라와 민족의 번영, 인류의 문명발전과 과학기술적진보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사업으로서 정정당당하며 그 누구의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는것이다. 또 우리의 우주정복의 길이 과학탐구의 길이기 전에 혁명의 길, 자주의 길이며 우리에게 평화와 자주권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개척된다는것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하는 중대사인 우주개발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이것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하여 포기할 우주개발사업이 아니다.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주체조선의 위성들은 앞으로도 나라의 존엄과 권위를 싣고 우주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날아오를것이다. 세계는 이것을 가슴후련히 보게 될것이다.

리 학 남

인민을 더없이 사랑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칭송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위대한 인민이라고 정을 담아 불러주시며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의 향유자로 내세워주시려고 애민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칭송하는 글들이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의 인터네트들에 실려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얼마전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2017년의 첫 진군길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가슴마다에는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은동지를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긍지와 행복이 넘쳐있다.

세상에 부러운것 없는 사회주의대화원, 인민의 리상이 꽃펴나는 문명강국을 일떠세우실 숭고한 뜻을 안으신 김정은동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에서 겪으시는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모시듯 인민을 받들자고 하시며 인민사랑의 천만리길을 이어가시는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조선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김정은각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은 인민사랑이며 이것은 정치활동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로 되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이르꾸쯔크블로그스포트.ㄹㅜ》는 김정은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은 그이께서 지니신 투철한 인민관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올린 문건을 보시어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합시다!》라는 친필을 남기시고 새롭게 건설된 창조물을 보시면서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으신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 《하나의 조선네트워크》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인민의 락원을 가꾸고계신다.

조선에 일떠서는 인민사랑의 창조물마다에 령도자의 손길이 가닿지 않은 곳이 없고 인민을 위해 아로새기신 헌신의 자욱이 어려있지 않은 곳이 없다.

령도자의 힘과 의지에 의하여 일떠서는 인민의 락원이 바로 세계가 애타게 갈망하는 인류의 리상향인것이다.

이처럼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 위대한 인류의 구세주를 높이 모시였으니 어찌 인민이 환호하고 세계가 들끓지 않을수 있겠는가.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은령도자의 한없이 자애로운 풍모는 세상천하가 얼어붙은 겨울에도 따뜻한 봄을 느끼게 한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믿음의 뉴대를 잇고 사는 나라는 아마 조선밖에 더는 없을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들을 하늘처럼 내세워주시는 령도자를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하늘과 태양으로 조화되는 이 숭고한 관계를 조선인민은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부르고있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인터네트홈페지는 조선의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되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바로 령도자들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사랑에 원천을 두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령도자가 인민을 더없이 사랑하고 인민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시켜주기에 인민은 령도자를 어버이로 칭송하며 높이 우러러모시고 충정을 다하는것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구현한 조선의 사회주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더욱 공고발전되고있다.

아이들의 모습에서 조선의 래일을 보았다

외국인들의 반향

절세위인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목격한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격정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스위스콩산당대표단 단장 마씨밀리아노 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후대들을 위한 일을 나라의 중대사로 여기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조선의 어린이들은 태여나서부터 당과 국가가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정속에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고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특히 평양중등학원을 돌아보며 받은 충격이 매우 크다.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이 그른히 갖추어진 학원에서 원아들은 책가방, 학용품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것을 나라에서 공급받으며 공부하고있다.

이것은 부모없는 설음이 있을세라 더욱 내세워주시며 그들이 앞날의 유능한 인재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후대사랑의 화폭이다.

친부모의 정과 사랑을 함뿍 받지 못할 뜨겁고도 다심한 그이의 은정속에 원아들은 나라의 억군으로 훌륭히 자라나고있다.

후대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부리사장 키스 벤네트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의 어린이들은 모두가 다 신동들이다.

가정에서 한명의 아이를 키우자고 해도 숱한 품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재간둥이들이 나라의 혜택속에 자라나고있으니 정말 놀랍기만 하다.

믿기 어려운 이 현실은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미래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참관한 라오스녀성동맹대표단 단원 생과딴 피안텀마린은 원아들을 위해 이렇듯 최상급의 보육기지를 꾸려주고 그들의 생활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돌봐주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을것이다, 어린이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여주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천품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토로하였다.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 부위원장 게브레셀라씨에 솔로몬 게브루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세대들을 온혈로운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신다.

그이의 손길아래 조선의 청소년들은 혁명의 계승자, 나라의 기둥감들로 씩씩하게 성장하고있다.

방문의 나날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조선의 밝은 래일을 보았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조선의 정책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귀감으로 된다.

미래사랑의 위대한 품에 안겨사는 조선의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동이들이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보문을 지지하여

지역기구 호소문 발표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보문을 지지하여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프리카지역준비위원회가 1월 13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올해는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번영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5돐과 김정일각하의 탄생 75돐,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해나가시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서 조선의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5돐이 되는 해이다.

진보적인류는 아프리카나라들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에 물심량면의 사심없는 지지와 방조를 주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를 진심으로 경모하고있다.

또한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위협을 물리치고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김정은각하를 열렬히 흠모하고있다.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천출위인들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려는것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아프리카인민들의 념원이기도 하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프리카지역준비위원회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보문을 지지한다.

아프리카지역에 있는 모든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과 진보적인사들이 백두산위인칭송비를 건립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할것을 호소한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전기화 추진

최근 인도네시아정부가 2024년까지 나라의 전기화를 100% 실현할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이미 세운 계획보다 3년 더 앞당긴것으로 된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6만 7 785km의 송전선을 부설하고 전력공급량도 훨씬 늘이는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지난해 이 나라의 전기화는 91.16%에 이르렀으며 올해에는 92.75%계선에 달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경제장성전망

보잠비끄에서 올해 경제가 5.5% 장성할것이 예견되고있다.

1월 25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밝히면서 경제발전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류독감전파방지조치

나이제리아에서 조류독감전파방지조치를 취하고있다.

1월 25일 이 나라 국회는 나라의 26개 주에서 조류독감이 급속히 퍼지고있는데 대처하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가 조류독감이 재발하게 된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테로반대투쟁

레바논군대가 최근 바이루트에서 자폭테로공격을 단행하려던 테로분자를 제포하였다.

최근 인디아의 아쌈주에서 테로소탕작전을 벌려 2명의 무장악당을 처단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사바호주와 꾸알라 룸뿌르에서도 각각 2명의 테로분자가 붙잡혔다.

관광업발전

캄보쟈에서 지난해에 관광객수가 약 500만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5% 더 많은것이라 한다.

이 기간 관광업부문에서 약 62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조성되였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경제발전노력

남부수단에서 수출을 장려하며 경제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원유수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예산자금을 마련하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참깨와 락화생을 비롯한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힘을 넣을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나라에서는 30t이상의 풀을 수출하였다 한다.

미국의 군수물자보급기지건설계획 비난

필리핀대통령 로드리고 드테르테가 1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영구적인 군수물자보급기지를 건설하려는 미국을 비난하였다.

얼마전 미국방성이 올해에 필리핀령토에 무기고와 병영을 건설하고 철길을 부설할것이라고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현 미행정부가 필리핀의 3개 주에 군수물자보급기지들을 꾸려놓고 방대한 무장장비를 끌어들여 영구보존하려고 획책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것은 두 나라사이의 협정에 대한 엄중한 위반행위라고 단죄하면서 그는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정부의 립장을 밝혔다.

그는 필리핀에 미국의 보급기지들이 건설되는 경우 협약을 폐기하는것으로 그에 대응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부룬디의 폭포

테로공격사건 발생

카나다의 케베크시에서 1월 29일 테로공격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공포를 조성하였다.

이날 시에 있는 이슬람교문화센터에 뛰여든 무장한 범죄자들이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마구 총사격을 가하여 6명을 살해하고 8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사건발생직후 진압안은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이 나라 수상은 총기류범죄가 이슬람교도들을 목표로 한 테로공격이였다고 주장하였다.

심각한 물부족현상

탄자니아에서 최근 가물이 지속되여 물부족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가물로 여러 지역에 있는 강줄기들이 말라버려 수천명의 주민들이 물부족난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물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 국가공동체 수뇌자회의 진행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국가공동체 수뇌자회의가 최근 도미니까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공동체성원국 국가수반들과 정부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꾸바혁명의 최고지도자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회의에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고 경제통합을 다그치며 기후변화, 식량안전 등 국제적문제들에 대처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참가자들은 반세기이상 지속되는 미국의 반꾸바봉쇄를 꾸바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로 단죄하였으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 번영을 위해 단결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회의에서 정치성명과 특별성명들이 채택되였다.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책동 규탄

팔레스티나대통령 마호무드 아빠스가 1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요르단강서안지역에 더 많은 유태인살림집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당국의 처사는 전세계에 대한 도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모든 국제적노력을 파탄시키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성명은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도전적행동에 완강히 대처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서방의 내정간섭행위 단죄

로씨야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가 1월 25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서방의 내정간섭행위를 규탄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이 극단적인 자유주의가치관을 퍼뜨리며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주권국가들의 정권을 교체하여 이 나라들의 국내정치구도를 바꾸어놓으려 하였으나 그것은 실패를 면치 못하였으며 오래동안 그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고 밝혔다.

그는 《아람의 봄》을 실례로 들면서 외세의 간섭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을 무정부적인 혼란상태에 빠뜨렸으며 국제테로와 극단주의의 성행과 피난민대란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해나갈 의지 표명

꾸바에서 1월 27일 꾸바인민의 민족적영웅 호세 마르띠생일 164돐을 기념하였다.

수도에서는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인 라울 까스뜨로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이 청년들과 함께 아바나종합대학으로부터 횃불행진을 시작하였다. 횃불을 추켜들고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초상화를 든 행진참가자들은 호세 마르띠와 피델 까스뜨로동지가 개척한 혁명의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해나갈 결심을 피력하였다.

이날 전국적범위에서 청년대학생들의 횃불시위들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격렬해지고있는 로미사이의 비난전

로씨야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비난도수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서방은 크림반도병합과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 싸이버공간을 통한 미국선거개입 등의 문제를 가지고 로씨야를 걸고들다 못해 《인권》과 《민주주의》보장원칙을 심히 위반하고있다고 몰아대고있다.

까를로브대사는 누가 살해했는가

지난해말 로씨야외무성 대변인은 튀르끼예주재 로씨야대사 안드레이 까를로브가 살해된것은 전적으로 서방나라들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발언은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럴만도 하였다. 그때까지도 까를로브대사를 목표로 한 테로사건의 동기와 조직자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상황이였기때문이다.

로씨야가 대사살해의 책임이 서방나라들에 있다고 단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간단명료하다. 오래동안 진행된 서방의 목적지향성있는 반로씨야선전이 초래한 결과이라는것이다.

대변인은 언제인가 프랑스대통령이 도이췰란드의 련방의회에서 로씨야의 수리아정책을 반대할것을 호소하면서 어째서 베를린주재 로씨야대사관앞에서 불은 로씨야도 가만있지 않고있다. 로씨야는 서방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는 한편 그들이 추구하고있는 비렬한 목적에 대해 폭로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우연인가, 필연인가

얼마전 로씨야가 TV방송을 통하여 이전 정부수상 예브게니 쁘리마꼬브의 치료에 쓸 의약품들의 운반이 미국에서 지연되였던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몇년전에 로씨야는 앓고있던 쁘리마꼬브를 치료하기 위해 자국의 한 외교관에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에서 약을 구입해올것을 위임하였다. 필요한 모든 문건을 갖추고 외교관은 미국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가 약국에 갔을 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미국특수기관 성원들이 그를 억류하였으며 1시간동안이나 붙잡아두었다. 그들은 비법적인 약품거래를 하였다는 혐의를 들씌우면서 외교관을 협박하려 하였다.

결국 며칠후에 로씨야외교관은 의약품을 압수당한채 미국에서 추방되였다. 로씨야가 해당 사건에 대해 미국무성에 통보하자 당시 미국무장관이였던 케리는 필요한 약품이 하루빨리 로씨야에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분주탕을 피웠다. 하지만 그것은 때늦은 《수고》였다. 쁘리마꼬브는 끝내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정말로 착오에 의한 우연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고있다. 쁘리마꼬브로 말하면 지난 시기 대외정보국장, 외무상, 수상, 상공회의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로씨야정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인물로서 지금도 많은 로씨야인들로부터 능력있는 국가사회활동가로 인정받고있다. 특히 그는 대외분야에서 대국으로서의 로씨야의 지위를 강조하면서 자기 나라가 국제문제들에 끌려다닐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일극세계수립책동에 대응한 다극화의 개념도 그가 처음으로 내놓았다고 한다. 쁘리마꼬브는 미국에 있어서 결코 달가운 인물이 아니였다.

미국은 지난 시기 제 비위에 맞지 않는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에 대한 암살사건들을 적지 않게 꾸며낸 전과를 가지고있는것만큼 의심을 받아 마땅하다.

로씨야의 사실공개는 이것이 의식적으로 사전에 조작된 모략행위라는것을 강하게 암시해주고있다.

협잡군, 정탐배, 망나니외교관들

로씨야외무상은 지난 시기 모스크바주재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참을수 없는 조건에서 사업한다느니, 미행이 뒤따르고 대사의 활동을 방해한다느니, 그 어느 로씨야기관들도 대사를 만나주지 않는다느니 하는 신소를 계속 받아왔다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조사해본 결과 상황은 정반대였다고 하면서 특히 로씨야의 성기관책임자나 국회의원들이 미국대사를 만나준 회수는 미국인들이 자기 나라 대사를 만나준 회수보다 10배나 더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로씨야에서 외교관이라는 방패를 들고 활동하고있는 미국대표들의 정탐활동을 여러차례나 제지시켰는데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가발을 쓰고 덧눈섭을 붙인 변장한 미국외교관이 안전일군에게 증명서도 보이지 않고 그를 구타하고는 미국대사관건물로 들어간 지난해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실례는 매우 많다고 기자들에게 말하였다.

몇년전 한 미국외교관이 로씨야련방안전국 일군을 고용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이 폭로되여 로씨야에서 추방당한 사건도 그중의 한 실례이다.

로씨야외무상의 점잖은 말속에 미국외교관들에 대한 비난과 질책이 짙게 깔려있은것은 물론이다. 미국외교관들은 자국정부의 침략적이며 내정간섭적인 정책의 집행자들로서 그들의 위선과 기만, 불손한 행위들은 세계 각국에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

이것은 현재 로씨야와 미국이 벌리고있는 비난전가운데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통해 미국을 축으로 하는 서방나라들과 로씨야사이의 대립과 모순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알수 있다.

전문가들은 부리길은 적대의식을 품고있는 쌍방사이의 호상비난전이 앞으로 더욱 열기를 띠고 벌어지게 될것으로 보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

ㄱ-71019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말소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